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1636년 12월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성 안에 넣는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웁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운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입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운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戰)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守)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和)가 아니라 항(降)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가.”

김상헌이 말했다.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和) 자를 먼저 꺼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이백 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상헌의 답답함이 저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길을 끊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우 터인데,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 창의: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제시문 (나)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여길 수 없다. 그럴 경우 평화 조약은 모든 적대 관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이나 전쟁의 연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오히려 전쟁의 상태다. 즉 자연 상태에서 항상 적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적대 행위의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는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증이 이웃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웃들이 서로 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 공화제여야 한다. 이 체제의 조건은 첫째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근거를 둔 의존의 원리에 의해, 셋째로 평등의 원리에 의해 마련된다. 이 체제가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필수적인데, 국민은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감수하는 데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나 독재자는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손쉽게 전쟁을 선포해 버린다.

자연 상태에서 여러 국가들은 폭력과 전쟁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상호 이익을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역과 상업주의 정신 덕분이다. 국가의 힘에 속하는 모든 수단 가운데 물질적인 부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부의 유지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 어디든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게 된다.

제시문 (다)

평화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모든 사람의 번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신념이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늘 평화롭게 살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부자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있겠는가? 어떠한 이득도 없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자신을 옹호할 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또는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길이 곧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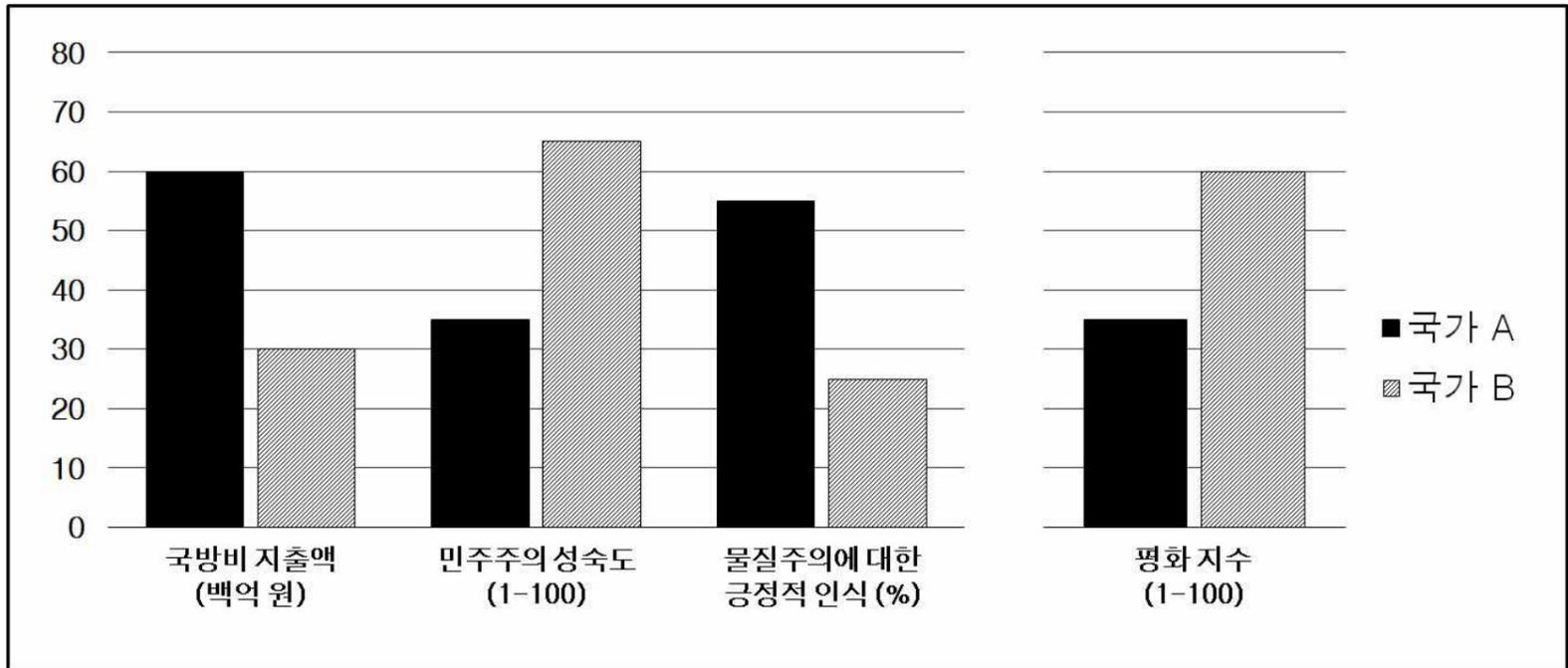
이러한 지배적인 신념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기가 있다. 이에 따르면 풍요로움이라는 희망 사항이 빨리 실현될수록 또 하나의 희망 사항인 평화도 곧이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풍요와 평화의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학과 기술이 있기에 굳이 금욕이나 희생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물질적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일까? 곧바로 더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충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경제 성장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학자는 '충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 게다가 "좋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풍족한 사회가 있을까? 그러한 사회가 있을 리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려고 해서 평화의 토대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질투심에 의해 달성된 번영은 결국 평화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망을 줄여야만 다툼이나 전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아래 그림은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결과인 평화 지수를 보여 준다. 평화 지수는 국내외적인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국가 A와 국가 B의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제시문을 비교·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 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